

# KIA '1선발 후보' 크로우, 4이닝 완벽投

### 한화戰 '최고구속 150km' 4이닝 4K 무실점 최원준 솔로포 3대0...오늘 류현진과 맞대결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투수 크로우가 완벽 투구를 선보이며 정규 시즌 기대를 높였다.

크로우는 11일 한화생명아리솔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 리그 시범경기 3차전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4이닝 동안 무안타 무사사구 4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12명의 타자를 맞아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총 40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 150km를 찍었다.

경기 내내 안정된 투구를 펼친 크로우는 4회까지 삼진 4개를 솜아 내며 한화 타선을 압도했다.

1회에 안치홍을 헛스윙 삼으로 잡아낸 크로우는 2회 두 타자를 각각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로 돌려세웠다.

3회에는 147km의 강속구로 삼진을 하나 추가하는 등 이범호 감독을 미소짓게 했다.

나머지 타자들도 모두 내야 땅볼로 처리, 완벽투를 펼쳐 시즌

새 외국인 투수 네일과 함께 KIA의 막강 '원투펀치'를 예고했다. KIA가 3-0으로 승리하며 크로우는 승리투수가 됐다. 크로우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유준현과 김대우, 박준표, 최지민, 정해영도 1이닝씩 책임지며, 한화 타선을 9회까지 3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타선에서는 최원준의 1안타(홈런)를 포함해 박민과, 나성범, 박정우, 김태균이 1안타씩 때렸다.

KIA가 1회에 홈런포로 먼저 선취점을 뽑았다.

타석에 들어선 최원준이 한화 외국인 선발 페냐의 직구를 견어 올려 우익수 담장을 넘는 솔로포를 쏘았다. 앞선 NC와의 시범경기 2경기 6타수 무안타의 부진을 만회한 홈런이었다.

KIA는 이날까지 연습경기 3경기 연속 홈런으로 선취점을 올렸다.

KIA는 2회에도 볼넷, 폭투로 만든 2사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태균이 중견수 앞 안타를 때려 2루 주자 최형우를 홈에 불러들이며 추가점을 올렸다.



KIA 외국인 투수 크로우가 11일 한화생명아리솔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범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9회에는 박정우의 2루타로 1점 을 더 추가해 3-0 승리를 지켰다. 시범경기 2승째를 올린 KIA는

12일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한화 선발 류현진을 상대로 시범경기 4차전을 갖는다. /주홍철 기자



배드민턴 여자 안세영이 지난 10일 열린 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 한 후 팬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부상 털고 오뎅이처럼 부활... '배드민턴 여제'의 귀환

# 안세영, 프랑스오픈 역전 우승

부상 악재가 겹쳤던 안세영(22·삼성생명)이 오뎅이처럼 부활했다. 안세영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속적'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1(18-21 21-13 21-10)로 꺾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 1월 19일 부상 이후 인도오픈에서 기권한 지 약 7주 만에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년 뒤 2024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포트드라사벨 아레나에서 거둔 우승이라는 점도 뜻깊다.

안세영은 전날 타이즈임(대만)과 치른 열두 여파로 체력이 눈에 띄게 저

하된 모습이였다. 하지만 안세영은 모든 악조건을 딛고 챔피언의 귀환을 알렸다.

1세트를 내준 안세영은 2세트 14-8에서 한 점 차 추격을 허용하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7연속 득점으로 세트 점수에 균형을 맞췄다.

기세를 잡은 안세영은 3세트 초반부터 야마구치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5-0으로 치고 나갔다.

반면 야마구치는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안세영의 스트로크에 발도 떼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승기를 잡은 안세영은 더블 스코어로 3세트를 끝내고는 거세게 포효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연합뉴스

## '159골' 손흥민 구단 통산 득점 공동 5위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유니폼을 입고 159골을 터뜨려 팀 역대 득점 공동 5위에 오른 손흥민이 구단 전설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8라운드 원정 경기(4-0 승)에서 후반 추가 시간 쐐기 골을 터뜨렸다. 이는 손흥민이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후 터뜨린 159번째 골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1960년대 활약한 웨일스 출신의 공격수 클리프 존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둘은 구단 통산 득점 순위에서 공동 5위를 이뤘다.

이 부문 1위는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동지를 옮긴 특급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280골)이다.

존스를 포함해 2-5위는 모두 토트넘의 전성기인 1950-1960년대에 활약한 공격수들이다.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골잡이로 꼽히는 지미 그리브스(266골)가 2위, 보비 스미스(208골)와 마틴 차버스(174골)가 3, 4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 손흥민, 애스턴 빌라戰 '1골 2도움'...시즌 공격 포인트 20개 돌파



토트넘의 손흥민이 지난 10일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023-2024 EPL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팀이 2대0으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 추가 골을 터뜨린 후 '찰락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이어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날 1-0으로 앞선 후반 8분 브레넌 존슨이 넣은 골을 어시스트했고, 후반 추가 시간 4분 티모 베르너가 넣은 팀의 4번째 골 때도 도움을 작성해 이날 1골 2도움을 몰아쳤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4골 8도움을 올린 손흥민의 시즌 공격 포인트는 22개가 됐다. /AP-연합뉴스

# 광주FC 정호연, 성인대표팀 첫 발탁

### 황선홍 감독, 태극전 엔트리 발표...이강인도 낙점 광주FC 엄지성·변준수, 올림픽 대표팀 이름 올려

프로축구 광주FC '돌풍의 중심' 정호연이 생애 첫 A대표팀에 승선했다. 황선홍 축구 대표팀 임시감독은 11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에 나설 엔트리 23명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오는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홈경기를 치른 후 26일 태국 원정 경기를 소화한다.

광주 유스(금호고) 출신인 정호연은 2022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해 광주의 K리그 승격에 힘을 보탰고, 지난

해에는 K리그 최고 셋별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황선홍 감독이 사령탑을 맡았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중원을 책임지며 금메달 획득에 한몫했다.

정호연은 올해도 투지 넘치는 플레이와 날카로운 패스로 팀 득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팀의 연승을 이끌고 있다.

대표팀 합류 여부로 주목 받은 이강인도 황선홍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도중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로 '하극상' 논란을 딛고 다시 한번 국내 무대에 서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외에도 아시안컵 주축인 손흥민, 조규성, 김민재, 황인범 등이 재발탁됐고, 아시안게임 멤버였던 백승호, 엄원상도 호출됐다.

K리그 주민규와 이명재는 처음으로 A대표팀에 합류했다.

한편, 황선홍 감독은 같은 기간 2024 WAFF(서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사우디아라비아전에 나설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에 함께 발표했다. 올림픽 대표팀에는 광주FC 미드필더 엄지성과 수비수 변준수가 이름을 올렸다. /박희중 기자



지난 10일 열린 강원FC와의 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한 정호연. <광주FC>

# 전남도청 근대5종 서창완 월드컵 첫 대회 혼성계주 '銅'

서창완(전남도청)과 성승민(한국체대)이 올해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첫 대회에서 혼성 계주 동메달을 합작했다.

서창완과 성승민은 1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4 UIPM 월드컵 1차 대회 혼성 계주 경기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점수 합계 1천322점을 획득해 3위에 올랐다.

한국 근대5종은 전날 여자 개인전에서 김선우(경기도청)가 은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을 따냈다.

서창완과 성승민은 혼성 계주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4위, 승마에선 7위에 그쳤으나 수영에서 가장 빠른 기록(2분 1초 05)으로 완주한 뒤 7위로 출발한 레이저 런에서 선전하며 입상에 성공했다.

시즌 첫 월드컵에서 메달 2개를 수확한 한국 근대5종 대표팀은 다음 달 10-15일 화성에서 예정된 아시아선수권



서창완(전남도청)과 성승민(한국체대)이 올해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첫 대회에서 혼성 계주 동메달을 합작한 서창완(전남도청)과 성승민(한국체대)이 시상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대회 이후 유럽에서 이어지는 월드컵 대회를 준비한다. /연합뉴스

# 올해 K리그에 선수 936명 등록

### '고등학생' 준프로도 10명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 2024 선수 정기 등록을 마감한 결과 936명이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마감일인 지난 8일까지 K리그1 489명, K리그2(2부 리그) 447명의 선수가 등록됐다.

등록 선수 수는 지난해 정기 등록 925명보다 11명 늘었다. 936명 중 국내 선수는 834명, 외국 선수는 102명이다.

K리그12개 구단의 평균 선수 수는 40.7명이다. K리그1 전북 현대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K리그2 충북청주가

29명으로 가장 적었다.

22세 이하(U-22) 선수는 총 280명(K리그1 169명, K리그2 11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명 늘었다.

K리그1에서는 대구가 25명, K리그2는 충남아산이 15명으로 U-22 선수가 가장 많았다. 유스 출신 선수는 317명(K리그1 172명, K리그2 145명)으로 전년 대비 8명 줄었다.

준프로 계약을 통해 프로 무대에 도전하는 '고교생 K리그'도 총 10명이다.

시즌 중 추가선수등록 기간은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5주간이다. /연합뉴스